

# 일자리 창출·체류형 관광 육성...강진 활력 불어넣었다

## 강진군 2019년 성과 보니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기반으로 한 강진군의 올해 성과가 눈부시다.

강진군은 올해 6월 강진산단 완판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도 순조롭게 이끌며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 ◇일자리 창출 핵심동력 강진산단...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 주요 목표로 삼은 강진군은 강진산단을 핵심자원으로 활용해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군의 노력은 짧은 기간임에도 성과가 뚜렷했다. 기존 16.4%에서 담보상태에 있던 강진산단 분양률은 민선7기 출범 1년 만에 100%로 급상승했으며 올해 6월 강진산단 완판에 성공했다.

42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투자규모가 1조2630억원에 이르고 1126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는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시스템 구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군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완료했다.

일자리창출과를 신선히고 일자리경제팀과 투자유치팀, 인구정책팀과 지역공동체팀 등 분야별로 4개의 팀을 나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정책에 매진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도 개정했다.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포상 정책을 제정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군민포상제를 도입해 기업을 알선한 군민의 기여도와 투자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공무원의 경우 투자 유치에 공이 있을 경우 인사 우대 가점을 부여했다.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군민 포함 각계각층 41명이 참여하는 민간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실과 소장·읍

강진산단 분양률 100%로 '완판'

42개 기업 유치 1조2630억 투자 취업박람회 등 고용시장 활성화

가우도·강진만 인프라 대폭 확대 '조만간 프로젝트' 각종 공연 인기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떠올라

면장이 참여하는 기업유치보고회를 개최해 강진산단 분양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은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2019 강진산단 취업박람회'도 열렸다.

군은 강진산단을 33만㎡(10만 평) 규모로 추가 확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가동 중이거나 완공된 11개 기업을 제외하며 나머지 기업이 조기에 착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우수 인력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 간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군민 280명의 취업 연계에 성공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강진군 일자리 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고용 시장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대 '머무르는 관광도시 강진' 탈바꿈

강진군은 '머무르는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대에도 전력을 다했다.

군은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첫해인 2017년 전문가 컨설팅과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2년차 관광콘텐츠와 기반시설 정비를 거쳐 3년차인 올해 '내 마음이 닿는 곳, 강진'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기존 관광자원 강화 및 개발, 체류형 관광자원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를 본격 추진했다.



이승욱 강진군수가 지난 6월 투자협약 자리에서 강진산단의 분양률 100% '완판'을 선언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주민들로 구성된 재현배우들이 펼치는 마당극 '탱큐, 주모' 공연.

지난해 68만명이 다녀간 가우도는 기존의 쥘트랙과 제트 보트, 카타마란 요트 등 해양레저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야간경관 확충 등 관광객 편의시설과 볼거리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11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강진만 생태

공원은 생태테라스터로 확대하고 인근에 지방정원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조성 사업을 비롯해 강진산 우수 식재료를 이용한 강진맛집 50개소 육성에도 힘쓰는 등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전환을 위해 종합적

## 모노레일·새 출렁다리...달라지는 가우도

강진군은 2020년을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한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 가우도다. 군은 가우도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해 남해안의 거점 관광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첫 사업으로 '가우도 탐방로 경관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 가우도에 출렁다리, 포토존,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가우도는 출렁다리와 돌레길, 청자타워와 쥘트랙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관광객이 단조로워 2017년을 기점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가우도에는 대구면 저두와 도암면 망호를 연결하는 출렁다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출렁이지 않아 관광객의 민원이 많았다.

군은 실제 출렁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실시시설을 완료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2020년 1월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시작한다.

새 출렁다리는 1.8m의 폭과 150m의 길이로 설



가우도 모노레일 조감도

치될 예정이다.

출렁다리로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양쪽에 진입 데크도 설치한다.



새 출렁다리 조감도

총 40억원(국비 20억원)을 투입해 2021년 준공 예정으로 모노레일 설치공사도 진행된다.

노약자 등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동

시에 강진만의 아름다운 섬 풍경을 편안하게 느낄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될 모노레일은 가우도 섬 입구에서 정상(해발 70m)에 있는 강진청자타워까지 264m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60인승(30인승×2량)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구면 상저 일대 9만㎡(2만7000평) 규모로 팜파스 그라스 군락지 등 테마파크를 조성해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로 관광객유치 하는 한편 사계절 스포츠파크와 숙박시설도 함께 민자로 유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출렁다리 설치공사 등 현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로 특화된 전국 최고의 탐방 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